



광주은행, 임직원·지역민 대상 CPR 교육

광주은행은 2024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광주은행 임직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본점 1층 로비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해 인체모형을 본뜬 최신 에니를 활용한 이번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심폐소생술(CPR)에 따른 혈류변화 △기도 폐쇄 환자 처치법(하임리히법)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긴급 화재를 대비한 올바른 소화기 작동법 교육도 실시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본점 및 영업점 경비원 교육 중에 심폐소생술(CPR)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심폐소생술(CPR)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PFA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3일과 16일 적십자봉사원과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리적응급처치(PFA)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심리적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란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이해 △PFA 행동원칙 △PFA 실습 등으로 구성됐고 적십자봉사원 82명과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 2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박재홍 회장은 “재난 발생 시 PFA 교육을 받은 봉사원과 활동가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 온에어스테이션 네트워킹데이’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한 ‘광주온에어스테이션 제1회 네트워킹데이’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사진)

광주CGI센터 광주온에어스테이션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온에어스테이션 시설 소개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최신 동향 및 우수 콘텐츠 제작 사례 공유, 공간 활용 팁과 S1틀 활용 콘텐츠 제작 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네트워킹데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뜨거운 열정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이 지역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 북구갑지역위원회, DJ 묘역 참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사진)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 추도식’에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분향을 진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장, 최무송 북구갑 등 시·구의원 및 전국대의원 30명이 참여했다.

정준호 위원장은 “이번 참배를 통해 민주당에 필요한 호남 정신이 DJ 정신임을 깨닫고, 당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위해 싸운 호남인으로서 자긍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무도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집권 정당으로써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데 북구갑 지역위원회가 앞장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충장동 지사협, 6·25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광주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주거 취약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사진)

대상 세대는 6·25 참전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생활 중인 상태였다.

이에 충장동 지사협을 주축으로 동구지역자활센터가 대청소와 방역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효사랑출동대팀과 충장동은 각각 도배·장판 교체와 쓰레기·폐기물 처리 등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세대 어르신은 “나이가 있어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치우지 않고 살았다”면서 “충장동과 지사협 등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집안이 깨끗하게 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김병철 충장동장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언제든지 즉각 상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관형 광주 광산경찰서장 취임

지난 16일 광주 광산경찰 2층 여룡홀에서 이관형 신임 광주 광산경찰서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광주 광산경찰 제공



서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추모

서구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구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 기념공간을 마련했다.

광주 서구 제공

구두 수선공 김주줄씨 부부, 이웃에 온정 나눔

광주 동구는 대인교차로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운영하는 김주줄(69), 최영심(70) 부부가 최근 동구에 117만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며 수선비의 10%를 돼지 저금통에 모아왔다. 모은 돈은 2021년부터 광주 동구에 기부하고 있으며 총 4회 437만원을 전달했다.

동구는 전달받은 성금을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

획이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광주시에서는 김씨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청 1층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후원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카라, 9년 만의 日 단독콘서트… ‘헬로’ 첫 공개

그룹 ‘카라(KARA)’가 약 9년 만에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사진)

소속사 DSP 미디어는 지난 17~18일 카라가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 ‘카라 시아’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카라 시아’는 카라의 브랜드 공연이다.

카라는 데뷔 15주년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의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의 일본어 버전으로 공연의 포문을 열

었다. 이후 히트곡 ‘허니’, ‘프리티 걸’, ‘제트 코스터 러브’ 등을 선보였다.

또한, 카라는 지난 7월 발매한 싱글의 타이틀곡 ‘아이 두 아이 두’와 수록곡 ‘헬로’ 무대를 꾸몄다. 故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헬로’ 완전체 무대는 팬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한편, 카라는 오는 24~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카라시아’를 이어간다.

뉴시스



윤하, 2년10개월 만에 정규 7집… 이번엔 ‘성장 이론’

가수 윤하가 2년10개월 만에 정규 음반을 낸다.(사진)

19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하는 오는 9월1일 오후 6시 음원 플랫폼에 일곱 번째 정규앨범 ‘그로우스 피어리(GROWTH THEORY)’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명은 윤하가 지난 2021년 11월 발매한 6집 ‘엔드 피어리(END THEORY)’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번 앨범은 ‘피어리(THEORY)’ 3부작 연작의 두 번째 이야기로, ‘성장 이론’을 다룬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세계지도 위에 콘텐츠 공개 일정과 개복치, 연어 등의 드로잉이 포함된 ‘그로우스 피어리’의 타임 테이블을 공개했다.

특히 24일과 26일 각각 공개할 ‘기타 리프 솔로 오브 섀피시(Guitar Riff solo of SUNFISH)’, ‘아이리시 휘슬 솔로 오브 실버링(Irish Whistle solo

of Silvering)’이라는 독특한 콘텐츠 명이 눈길을 끈다.

이번 앨범 발매일은 윤하의 데뷔 20주년 기념일 당일이다. 윤하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총 20회의 단독 콘서트는 물론, 전시회, 굿즈, 숏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 중이다. 이번 앨범으로 백미를 장식한다.

윤하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다. 2004년 9월1일 만 16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첫 싱글 ‘유비키리’를 내놓았다. 이듬해 ‘호오키보시’(혜성)로 오리콘 일간 싱글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오리콘 혜성’이라는 별칭을 달기도 했다. 2006년 국내 데뷔 싱글 ‘오디션(Audition)’을 발매했다. ‘기다리다’는 이 싱글에 실렸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발매한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에 실린 타이틀곡 ‘사건의 지평선’이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윤하도 재조명됐다.

뉴시스